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아시아 주요국의 활어 교역 현황

■ 아시아지역 활어 교역 활발

- 최근 수산물 교역은 고부가가치제품과 가공수산물을 위주로 한 교역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아시아지역에서는 활어 교역이 여전히 활발함
 - 그 원인은, 관광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외식산업에서의 활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 아시아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의 소비자들은 냉동품보다 활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 또한 양식업 발전으로 활어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였고,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활어 구입이 수월해졌기 때문임

■ 중국, 활어시장 규모 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산물소비국이기도 함
 - 중국에서 소비되는 활어는 주로 자국내 양식업에 의해 공급되며 특히 잉어류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음
 - 2004년에 중국의 내수면 어류 생산량은 약 2,000만 톤으로 대부분의 활어가 중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었음
- 2004년에 중국의 식용 활어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10만 5,520만 톤,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47.4% 증가하였음
 - 이 중 활 뱀장어의 대일본 수출량과 금액이 각각 1만 1,000톤, 1억 2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 1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활어 수입은 직접 수입, 간접 수입, 미기록 수입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됨
 - 수입국에서 직접 수입된 활어는 홍콩을 통해 간접 수입된 활어보다 양이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또한 일부 고관세 수입 활어의 경우 중국 변경 양식장에서 몇 개월 양식한 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산으로 유통시키고 있음

■ 홍콩, 고가 활어의 주요 수입시장

- 홍콩은 고가 활어의 주요 수입시장으로 활어 생산이 적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
 - 2004년에 활어 총수입량은 3만 6,700톤으로, 이 중 해면·내수면 활어의 수입량이 각각 1만 700톤(6억 6,383만 홍콩달러), 2만 6,000톤(1억 9,700만 홍콩달러)이었음
 - 능성어 등 고가 해면 활어는 주로 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저가의 내수면 활어는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고 있음
- 능성어의 주요 수입국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 국가로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능성어는 홍콩 시장 공급량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 해면 활어 중 특히 능성어는 설 명절, 양력 설, 크리스마스 때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수면어류의 주요 수입 품목은 잉어, 화련어, 틸라피아, 메기 등임

【 2001~2004년, 홍콩 능성어 수입 현황 】

단위: 톤, 만 홍콩달러

구 분	2001		2003		200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호주	1,088	14,361.5	928	13,870.6	819	15,069.5
인도네시아	1,266	14,967.4	988	12,129.1	1,035	11,439.8
말레이시아	386	5,570.3	617	5,294.2	846	6,697.9
필리핀	1,121	11,041.1	1,588	15,826.3	1542	13,900.6
대만	263	1,587.4	198	1,466.5	310	2,412.9
태국	1,343	8,681.0	1,355	6,770.4	1,046	4,855.8
베트남	128	1,324.9	21	181.9	26	216.1
몰디브인	114	1,119.0	57	547.0	80	785.5
전 체	5,802	59,721.4	5,763	55,889.2	5,770	55,957.0

자료 : 중국, 월간수산물시장

■ 대만, 對일본 활어 수출 가장 많아

- 2004년에 대만의 활어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1만 7,876톤, 49억 5,130만 대만달러인데
 - 이 중 활 뱀장어의 수출량과 금액이 1만 7,515톤, 49억 1,670만 대만 달러로 95%가 일본으로 수출되었음
 - 또한 활 미꾸라지의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27톤, 1,538만 대만달러로 전부 일본으로 수출되었음
- 대만의 활어 수입은 최근에 증가세로 나타나 2004년에 수입량과 금액이 각각 1만 2,689톤, 23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4.5% 늘었음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새우, 바닷가재, 게류, 굴, 홍합 등이었음

■ 싱가포르, 활어 수입 감소

- 2004년, 싱가포르의 활어 수입량과 금액은 각각 1만 6,558톤, 8,360만 싱가포르달러로 전년보다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해면 어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내수면 어류, 새우류, 게류는 인도, 스리랑카에서, 바닷가재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 싱가포르, 활어 수입 현황 】

단위: 톤, 만 싱가포르달러

구 분	2003		200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뱀장어	21	16.5	24	24.1
기타 해면 활어	1,111	996.9	934	935.8
잉어	709	102.4	872	120.4
기타 내수면 활어	2,526	1,081.3	2,372	1,057.3
바닷가재	119	411.5	114	442.0
새우류	1,387	1,551.4	1,288	1,395.7
게류	4,203	3,263.8	4,470	3,586.6
굴	237	170.5	236	170.3
가리비	26	17.3	31	21.7
홍합	117	25.1	94	29.5
전 체	16,523	8,148.1	16,558	8,362.1

자료 : 중국, 월간수산시장

■ 태국의, 중국으로의 활어 수출 크게 증가

- 2004년 태국의 활어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3,225톤, 3억 6,660만 바트로 물량은 8.4%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9% 늘었음
 - 이 중 전체 수출량의 89%를 차지한 대홍콩 수출이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은 태국의 2대 활어 수출대상국으로 2005년 1~9월에 중국으로 206톤의 활어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575%나 늘었음

■ 인도, 활 게, 바닷가재 많이 수출돼

- 2003년 인도의 활 게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1,455톤, 6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20%, 40% 감소하였음
- 활 바닷가재의 수출량과 금액은 171톤, 297만 달러로 물량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금액은 전년보다 4%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임

<이은화, yhl19@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중국, '어업발전 11.5계획' 발표

- 中國漁網 11월 17일자 소식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지난 16일에 '중국어업발전 11.5계획'을 발표하였음
 - 본 계획은 '중국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1.5계획'과 '중국농업 및 농촌경제발전 11.5계획'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
- '11.5계획'에는 자원절약형 어업과 친환경형 양식업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성장방식을 전환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합리적인 자원이용방안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양식수역 개발계획을 세우며
 - 특히 양식업 발전계획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양식용량을 확정하고 양식장의 표준화와 규모화를 개선시켜 단위생산수준을 높일 것임
- 목표는 201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과 금액이 각각 6,000만 톤, 5,700억 위안(68조 4,000억 원)에 달하여 연평균증가율이 3.3%, 6.4%를 실현하는 것임
 - 이 중 양식업 생산량이 4,550만 톤에 달해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67%에서 76%로 올릴 계획임
 - 동시에 30개의 수산물가공기지를 건설하고 수산물 수출량과 금액이 각각 400만 톤, 120억 달러를 실현하는 것임
- 이처럼 중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절약형 어업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형 양식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는 중국정부가 자국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규범 및 질서에 부합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과 교역상대로 되었음
 - 또한 최근에 한·중 FTA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러한 수산정책 및 수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은화, yhli19@kmi.re.kr>

■ 수산청, 지역이 하나된 새로운 형태의 어촌지역 진흥사업 마련

- 수산청은 내년도 사업으로 일반기업의 어업 참여를 후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촌 지역 진흥사업 마련에 나섬
 - 이 사업은 수산관련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통, 건설 등 수산 이외 기업의 힘을 모아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내년도 예산으로 8,700만 엔을 요구하였음
 -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던 지역자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기존의 개별 경영체 중심의 대응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힘들다고 판단, 지역이 하나되어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사업을 행정 주도로 고안한 것임
- 사업명칭은 '어촌지역력(漁村地域力) 향상사업'으로, 개별 어업자, 가공업체 만으로 는 어획물과 수산물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의 다양한 기업과 개인의 힘을 빌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 때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수산청은 어협 및 생산자 그룹,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업 이외의 기업과 비영리법인 등의 참가를 호소함
- 수산청은 다양한 인재와 경영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영 합리화, 상품 개발, 마케팅, 신규사업 진출·창출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주요 보조대상은 조직 활동비 등 소프트웨어 마련에 소요되는 경비 전반으로, 보조율은 2분의 1이고, 상품을 개발할 경우는 개발비용과 홍보경비도 보조함
-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어촌지역 개발·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에 있어 비수산분야에 대한 개방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린 수산업을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어촌지역사회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써 향후 그 성과를 주목해 볼 수 있음

<임경희, imkh@kmi.re.kr>

■ EU, 인도 수산물 공장 감사

- 인도에서 EU로 수출된 수산물에서 항생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어 수입이 금지된 이후 수산물 검사의 일환으로 지난주 EU 감사팀이 인도 수산물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EU 식품수의학청(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감사팀은 인도 뉴델리에서

- 수출 검약청(Export Inspection Agency), 해산물 수출 발전공사(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와 연방 상업부(Union Commerce Ministry) 관계자를 만날 예정으로 있음
- 또한 이 감사팀은 둘로 나뉘어서 코치(Kochi)와 첸나이(Chennai)에 있는 공장을 방문할 것이며 나머지는 동남 해안에 위치한 콜카다(Kolkata),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 지역을 조사할 예정임
 - 방문할 시설물로는 양식장, 수산물 가공공장과 어항, 실험실, 냉동 창고 같은 기반 시설물 등을 포함할 예정임
- 최근에 인도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서 항생제와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어 수출이 금지된 상황에 대해서 인도 가공 산업 관계자들은 양식장에서 받은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했으며 가공과정에서 이런 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연방 상업부(Union Commerce Ministry)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 또한 이들은 양어지와 양식장에 대해 조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양식장을 조사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 EU시장은 인도 수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이므로 인도 당국자들도 수산물 위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EU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여러 나라들은 가공 단계에서의 위생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 하지만 이런 가공 단계에서의 위생 검역 강화 뿐 아니라 원재료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자들의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요구 됨
 - 이러한 여러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감소 노력과 안전성 유지 노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민의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와 수출입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강형덕, thymos@kmi.re.kr>

■ 미국, 오대호에서 바이러스성 패혈증 발견

- 미국의 연방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오대호 및 그 인근에서 생산된 활어에서 바이러스성 패혈증(viral hemorrhagic septicaemia, VHS)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활어의 주 정부간 이동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음
- 미국 농무성의 농식품 보건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이 발표한 리스트에는 37개 어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대호 인근 지역인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

육 및 인근 캐나다의 퀘벡과 온타리오 지역에서 수입되는 활어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였음

- 37개 어종에 포함된 어류에는 무지개 송어, 연어, 등목어(perch), 배스(bass) 등이 포함됨

○ 그러나 농식품 보건검역청이 활어의 주정부간 이동을 완전 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어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다소 완화시켰음

- 즉, 오대호에서 생산된 어류가 VHS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구 및 도살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정부간 이동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음

○ 이번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어류의 질병 확산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주 정부간 이동을 완전 차단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활어 소비도 늘어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성 관리와 관련 상기 미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임

<정명화, jmh@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중국 농업부, 창장수역 희귀 멸종 어류자원 조사 실시

- 중국 농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창장(長江)수역의 희귀 멸종 어류자원과 환경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본 조사는 2년을 걸쳐 창장 상류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희귀 멸종 어류자원과 수역환경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 1~10월, 산둥성 수산물 수출 15.8% 늘어

- 1~10월, 산둥(山東)성의 수산물 교역량과 금액은 각각 181만 톤, 41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11.3% 늘었음
 - 이 중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84만 3,000톤, 25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15.8%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일본이 가장 높은 교역수준을 보였으며 EU, 미국, 한국 등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 중 한국으로의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15만 4,000톤, 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광둥성 중산시, 홍콩·마카오의 내수면 수산물 공급기지로

- 현재 홍콩 내수면 수산물시장의 40%, 마카오 내수면 수산물시장의 70%가 광둥(廣東)성 중산(中山)시에서 공급되고 있음
 - 중산시의 수출용 내수면 양식기지는 약 3,468ha로, 연간 수출용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이 약 10만 톤에 달함

■ 일본, 10~12월 다랑어 가격 11~20%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수산청은 21일 10~12월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다랑어 도매가격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11~20%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수입 감소로 인해 비교적 가격이 값싼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가격도 예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수급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다랑어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다랑어의 수요 증가와 대일본 수출이 많았던 대만의 조업 자속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음

■ ICCAT 연차회의, 어획 삭감, 감시 강화에 초점

- ICCAT(대서양다랑어류보존국제위원회) 연차회의가 17일 크로아티아에서 시작되어 26일까지 개최되는데, 최고급 뱃살 재료로 일본에서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참다랑어에 대한 각 국의 어획량 삭감 및 감시체제 강화 합의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
 - 참다랑어는 남획에 의한 자원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과학위원회는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획규모를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 일본은 참다랑어의 세계 최대 소비국가로, 전체 어획량 감소가 가격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CCAMIR, 남극해에서의 심해트롤어업 일시금지 결정

- '남극 해양생태자원의 보호에 관한 위원회(CCAMIR)'가 심해 생태계를 지킬 목적으로 공해의 심해트롤 조업을 일시금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공해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심해트롤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임

■ 필리핀, 해조류 공급 증대 노력

- 필리핀 수산업 자원국(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신선 또는 건조 해조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달 100~150톤 가량의 해조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더욱이 말레이시아 해조류 가격은 톤 당 650달러인데 반해 필리핀 해조류 가격은 톤당 560~620달러에 불과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필리핀 정부는 해조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베트남, 메기(catfish)에 대한 수요 증가

- 유럽시장에서의 갑작스런 강한 수요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메

콩(Mekong)강 주위에서 베트남 메기(catfish)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음

- 이로 인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수출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원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가공 생산업자들이 유럽과의 협상을 중지하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

■ 태국, 환율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 태국의 선도적인 냉동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에 따르면 현재 강한 바트화(Baht)에도 불구하고 3/4분기에 이 회사의 매출이 11%나 증가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작년 3억 5,110만 달러에서 올해는 3억 8,920만 달러로 매출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음

■ 미국 Cargill社, 베트남에 농수산물 유통체인 설립 예정

- 미국의 Cargill업체는 WTO의 150번째 가입국인 베트남에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설립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베트남에 대해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Cargill 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하는 유통업체는 주로 농산물, 수산물, 동물사료 등을 취급할 예정이며, 업체의 운영은 현지에서 담당할 계획임
 - 현재 전 세계 6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Cargill사는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수산물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 미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20년에는 수산물이 베트남이 주요 수출품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가공기술을 제고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판매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기 때문임

■ 유가 안정으로 어업에 긍정적 효과

- 현재 브레트 유의 베럴당 선물 가격은 57.04달러이고 내년 1월의 인도 가격은 58.23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05년 동기의 인도 가격과 비교하면 2.5달러 하락한 것임
 - 유가 하락의 원인은 미국의 천연가스 비축량이 증가한 점과 최근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 온난하며 난방 수요가 적은 점 그리고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축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임

- 이 같은 유가 하락으로 그 동안 유가 상승으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가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훈제 연어의 40% 이상이 칠레산

- 올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칠레산 훈제 연어는 976톤, 1,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6.0%) 및 금액(27.3%)이 증가하였음
 - 올해 미국이 수입한 훈제 연어의 총 금액은 2,500만 달러(225만 톤)이고, 이 가운데 칠레산이 약 4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네덜란드산 훈제 연어(890만 달러), 노르웨이(93만 달러), 영국,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임